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전북학연구센터 박정민 부연구위원  
(063-280-7171, 010-9938-6018)  
· 담당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20년 03 월 12 일부터

# 전북형 디지털 뉴딜의 시대 마한·백제의 콘텐츠를 시작점으로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특별법으로 정비·활용 등 법적 근거 마련  
강후진의 「유금마성기」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확장 및 사적지정과  
국책사업 발굴 기반 마련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등의 추진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021년 3월 12일 『강후진의 「유금마성기」의 복원을 통한 마한·백제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이슈 브리핑을 발간했다.
- 조선 후기 실학자 강후진은 「유금마성기」에 당대의 마한과 백제의 유적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마한과 백제의 콘텐츠를 확장하고, 전북형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다.
-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며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의 정비·활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되었다. 여기에 전북의 마한이 누락됐으나 광주·전북·충청 등에서 포함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권역 확장 가능성이 높다.

- 전북은 마한을 꽃 피운 중심지로 관련 유적이 상당히 많다. 다만 문헌 부분은 제한된 측면이 있어 콘텐츠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 발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18세기 고창의 실학자 강후진의 「유금마성기」는 정형화된 자료와 유적을 넘어서는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고, 기존 자료와 연계하여 사적 지정·국책사업 발굴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최근 한국판 뉴딜에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유금마성기」의 내용을 토대로 세밀하게 미륵사지의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준왕의 남천과 관련된 홀로그램 제작, 디지털 키오스크, 미디어 파사드 등의 기술 접목이 필요하다.
- 또한, 강후진이 직접 답사한 곳을 복원하여 ‘실학자의 길’을 구축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북의 인물 강후진을 재조명하여 실학자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 있다. 이를 위해 설립 예정인 전라유학진흥원에서 과제로 저서 등을 번역하고 각종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여 최치원-김구-유형원-강후진-신경준-황윤석-전우 등으로 계승되는 전라유학의 맥을 구축해야 한다.
- 박정민 박사는 “전북 지역의 실학자인 강후진을 재조명하고, 그의 역작인 「유금마성기」의 내용 토대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